



제6차 6자회담 전체회의 개막식이 19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리고 있다.

“아베는 인권 이중잣대 가졌다”

北 납치 비난하면서도 종군 위안부 모르쇠 일관

LATIMES 보도

남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수만명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의 쳐사는 아베 신조 총리 개인만이 아닌 국민적 태도이며 이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아베 총리는 어떤 평가를 들어도 좋다는 듯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수만명의 아시아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으로 북한이 냉전기간에 일본에 교육 등을 위해 자국민을 납치해간 행위에 대한 분노는 삭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아이러니를 이해할 만한 어떤 힌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강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아베 총리의 쳐사에 대해 일본 내에서 어떤 반발도 없었고 유력 언론매체들은 아베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이를 계속 고수하도록 힘을 불어 넣고 있다면서 금기야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각의에서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런 행태와는 반대로 일본은 남북자 문제에는 국민적으로 분노하고 있

고 일본 정부는 급기야 지난주에 13살 때인 1977년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사건을 소재로 한 100만 달러 짜리 TV 광고를 내보냈다.

타임스는 이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강제했다는 문서화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행태는 취임 후 무력해졌다라는 당내 지적을 모면해보려는 쳐사라는 등의 여려 지적이 있다. 그리고 있다면서 “이런 발언으로 인해 일본이 입을 대외적 이미지 손상을 아베 총리가 알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美 체면-北 실리 ‘급속 의기투합’

BDA 자금 전면 해제 배경과 전망

18개월 가량 북핵 문제 진척을 가로막았던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 문제가 19일 전액 반환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등북아 정세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이의 실천서라 할 수 있는 ‘2·13합의’가 실제 이행될 수 있는 발판과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출기차게 2·13합의 초기 단계 조치의 이행 조건으로 BDA 동결자금 해제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핵시설 불능화’ 시기·범위 저울질

가깝게는 동결자금이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동시에 영변 5㎿ 흑연감속로의 전원 스위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2·13합의가 규정한 60일 이내 초기조치가 확실히 이행될 전망이다.

◇60일내 조치 ‘낙관’=일단 북한이 BDA 동결자금 2천500만달러 전액을 손에 넣게 되면 풀루토늄 원료인 폐연료봉을 양산하는 영변 5㎿ 원자로의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은 폐쇄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이번 베이징 실무그룹 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흑연 감속로와 폐연료봉에서 풀루토늄을 추출하는 차례 리시설인 방사화 핵실험실 등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절차가 IAEA의 입회 아래 이뤄지고 감시 및 검증활동을 위한 IAEA 요원이 북한에 상주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은 나머지 5자와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에 대한 협의도 시작하게 된다.

◇불능화와 북·미관계 개선의 핵심=이후 정세를 좌우하는 것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협조하는 핵시설의 불능화’ 문제에 대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불능화에는 중유 95% 삼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걸려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날

화제제 평화 조성과 함께 핵시설 폐쇄를 탈 공산이 크다.

일단 대상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 동결됐던 영변 5㎿ 원자로, 연료봉 제조시설, 영변 50㎿ 원자로, 태천 200㎿ 원자로 등 5개 시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임계시설이나 우라늄광산, 나아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포함될지 관심사다.

여기엔 연결될 것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신고’ 문제다. 신고 과정에서 2차 북핵 위기의 배경이 된

‘고농축 우라늄’ 각국 입장 변수

HEU나 UEP가 걸려 있고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행동으로 쌓아온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다시 대립의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자 외교장관회담과 남북정상회담=60일 내 초기 조치가 이행될 경우 2·13합의가 명시한 6자 외교장관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6자 외교장관들은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6자가 가야 할 큰 그림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동북아 지역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6자 를 밖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평화체제 평화 조성과 함께 핵폐쇄를 탈 공산이 크다.

/연합뉴스



“BDA 타결은 美 국무부 작품”

비둘기파가 ‘보수 매파’ 재무부 설득

“미국 국무부가 끝내 재무부의 완강한 고집을 꺾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18일 오전 베이징에서 미 정부의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을 발표, 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후 미 관계자들이 이 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워싱턴의 고위소식통은 이날 “이번 BDA 문제의 완전한 타결은 거의 국무부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

는 것이다.

그간 국무부측의 강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재무부의 발 표 내용은 상당히 강한 톤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반면 재무부는 BDA 북한 동결계좌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고, 북한 폐기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마카오의 BDA은행 계좌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를 모두 해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힐의 요청을 받고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라이스 장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BDA 문제 타결은 디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강경 보수 매파에 대한 라이스-힐 라인으로 이어지는 비둘기파의 승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는 것이다.

그간 국무부측의 강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재무부의 발 표 내용은 상당히 강한 톤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라이스 장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BDA 문제 타결은 디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강경 보수 매파에 대한 라이스-힐 라인으로 이어지는 비둘기파의 승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中, 대입시험에 愛情詩 첫 출제

견우·직녀의 사랑 古詩 2편 포함돼

“중국 대학입시에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삼은 애정시의 출제를 금지한 ‘황당한’ 일이 이제야 끝을 보게 됐다.”

매년 6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중국의 대입수능고사 ‘가오카오(高考)’의 어문(語文) 문제에 애정시도 출제될 수 있도록 한 교육 당국의 결정에 대해 일부 중국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수험생들이 암기하

해 엘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부상한 미군들에 대한 부실한 치료가 폭로돼 논란을 빚고 있는 월터 리드 미 육군병원 파문도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라크 전쟁 4년을 맞아 반전 시위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고, 의회도 이라크 철군 법안을 검토 중이어서 부시 대통령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온 연방검사 무더기 해임 파문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 않으면 안되는 고시(古詩)와 고문(古文)의 리스트를 정해 놓고 매년 2~3개의 문제를 출제해 오고 있으나 애정시는 배제됐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가오카오에 처음으로 ‘초초견우성(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견우성)’ ‘작교선(鵲橋仙)’ ‘장정송별(長亭送別)’ 등 애정을 노래한 시와 가사가 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초초견우성’은 은하수를 사이

에 두고 서로 그리워하며 눈물만 흘리는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작자 미상의 고시다.

‘작교선’ 역시 오래 동안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7월 칠석에 꿈 같이 해로에서 애정한 점을 나누지만 곧 다시 이별하게 됨을 아쉬워한다는 북송(北宋) 때 시인 진관(秦觀)의 작품이다.

이같은 애정시가 처음으로 가오카오의 어문시험 출제 대상이 된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 강조되고, 특히 칠석을 중국의 벨린 타인데이로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흥미롭다.

/베이징=연합뉴스

【기탄교육】 엄마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파일(F) 편집(M) 보기(V) 즐겨찾기(S) 도구(I) 도움말(H)

위로 ← → 검색 즐겨찾기

주소(D) http://www.gitam.co.kr/

고객문의 : 02586-1007 G 기탄교육

마이 댓글

기탄 홈페이지에 오면 1등 노하우가 보인다

등 앱마들은 매일매일 기탄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한글 크로마이드부터 세기지도, 금스한자포스터까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학습자료도 무료로 받아보기
선배엄마들의 교육노하우도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검색창에 ‘기탄교육’ 만 쳐 보세요.
어제껏 알지 못했던 자녀교육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집니다.

gitam.co.kr

